

2020년 5월 1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반발 매수와 경제 재개 소식에 힘입어 반등 트럼프 대중국 강경 발언 Vs. 뉴욕주지사 경제 재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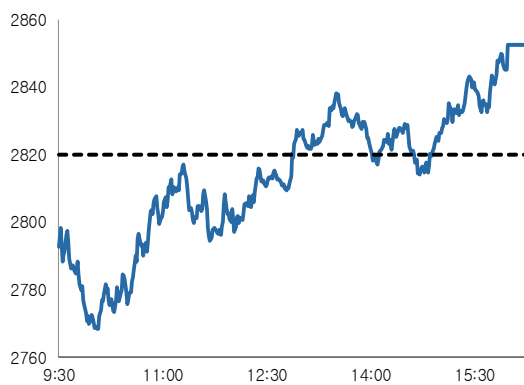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고용불안, 미-중 마찰, 경제 재개

미 증시는 불안한 고용시장에 의한 경기회복 지연 우려 및 미-중 무역마찰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 출발. 특히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낙폭이 확대. 그러나 장 초반 배당 축소 우려로 급락하던 금융주가 강세로 전환하자 다우지수는 상승. 그러던 지수는 장 마감 앞두고 애플의 VR 회사 인수 및 뉴욕 주지사의 경제 재개 확대 발표로 상승폭 확대(다우 +1.62%, 나스닥 +0.91%, S&P500 +1.15%, 러셀 2000 +0.35%)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 주(317.6 만건) 보다 둔화된 298.1 만건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250 만건)을 상회.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고용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여전히 해고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높임. 그러나 발표된 보고서에서 지난 2 일 기준 일주일 이상 신청자수가 2,283.3 만건을 기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그 전주보다 45.6 만 건 증가에 그쳤다는 점은 미국의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 개선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줘 시장에 충격은 크지 않음. 더불어 장 마감 앞두고 코네티컷주의 수치가 약 3만건이 30만건으로 잘못 표기 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러한 고용불안 완화 심리도 높아짐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라고 주장.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라는 민주당의 공격이 거세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트럼프는 최근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음. 여기에 경기 둔화 여파로 중국의 대미 수입이 1 차 무역협상 합의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자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대 중국 압박을 높임.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살펴 보고 있고,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강도가 더욱 확대된 점은 부담. 다만, 장 마감 앞두고 애플의 가상현실(VR) 회사 인수 보도로 인한 반도체 업종 강세, 뉴욕주 주지사의 단계적 경제 재개 확대 발표로 지수 상승폭은 더욱 커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0.80	1,924.96	홍콩항셱	-1.45	23,829.74	-1.45
KOSDAQ	-0.14	690.57	영국	-2.75	5,741.54	-2.75
DOW	+1.62	23,625.34	독일	-1.95	10,337.02	-1.95
NASDAQ	+0.91	8,943.72	프랑스	-1.65	4,273.13	-1.65
S&P 500	+1.15	2,852.50	스페인	-1.29	6,545.60	-1.29
상하이종합	-0.96	2,870.34	그리스	-0.46	588.12	-0.46
일본	-1.74	19,914.78	이탈리아	-1.84	16,867.76	-1.8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1% 상승

애플(+0.61%)이 가상현실(VR) 스타트업인 NextVR을 인수했다. 이미 어느정도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었으나, 미 증시 마감을 앞두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NVIDIA(+3.22%), AMD(+4.47%) 등도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시스코 시스템즈(+4.53%)가 매출 부진 불구 이익 개선 및 CEO의 재택 근무 등으로 인한 관련 부문 강세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자 강세를 보였다. 이는 애플의 VR 회사 인수와 더불어 마이크론(+5.05%), 램리서치(+8.38%) 등 반도체 관련 업종 또한 강세를 보이게 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1% 상승했다. AMAT(+5.71%)도 장중에 강세를 보였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로 시간 외 2% 내외 상승 중이다.

JP모건(+4.15%), 웰스파고(+6.79%), BOA(+4.02%) 등 금융주는 장 초반 배당 감소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큰 폭으로 상승 하며 마감했다. 씨티그룹(+3.60%)의 경우는 고용 불안 등으로 여타 금융주에 비해 상승이 제한되다 장 마감 앞두고 경제 재개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폭을 확대하며 마감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1%	대형 가치주 ETF(IVE)	+1.45%
에너지섹터 ETF(OIH)	+1.55%	중형 가치주 ETF(IWS)	+1.49%
소매업체 ETF(XRT)	+0.50%	소형 가치주 ETF(IWN)	+0.45%
금융섹터 ETF(XLF)	+2.57%	대형 성장주 ETF(VUG)	+0.87%
기술섹터 ETF(XLK)	+1.27%	중형 성장주 ETF(IWP)	+1.4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0%	소형 성장주 ETF(IWO)	+0.30%
인터넷업체 ETF(FDN)	+0.71%	배당주 ETF(DVY)	+1.25%
리츠업체 ETF(XLRE)	+0.1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3%
주택건설업체 ETF(XHB)	+2.1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4%
바이오섹터 ETF(IBB)	-0.45%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1.10%	하이일드 ETF(JNK)	-0.28%
곡물 ETF(DBA)	-0.15%	물가연동채 ETF(TIP)	+0.12%
반도체 ETF(SMH)	+2.80%	Long/short ETF(BTAL)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3.07	+0.94%	-3.33%	+15.91%
소재	317.09	+1.23%	-1.70%	+4.34%
산업재	503.27	+0.97%	-3.25%	-1.22%
경기소비재	932.38	+1.31%	-0.44%	+2.96%
필수소비재	582.12	-0.31%	-0.05%	-5.02%
헬스케어	1,159.19	+1.07%	+0.69%	+0.79%
금융	351.18	+2.64%	-2.90%	-0.51%
IT	1,633.76	+1.26%	-0.53%	+5.43%
커뮤니케이션	170.01	+1.00%	-0.89%	+4.69%
유틸리티	281.30	+0.95%	+0.65%	-5.59%
부동산	192.60	+0.09%	-5.11%	-7.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8%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7.3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경기 회복 지연 및 미-중 무역 마찰 등의 여파로 하락 했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지속되는 등 수급적인 부분 또한 부담이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가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금융주가 반등을 하며 장 초반 하락을 뒤로하고 반등에 성공한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미국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마찰 확대 우려는 여전히 시장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뉴욕주 주지사가 단계적 경제 재개를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한 점, 국제유가가 급등 한 점을 감안 투자심리는 우호적이다. 여기에 애플이 가상현실(VR) 기업 인수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관련 종목은 물론 반도체 업종(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1%)이 강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호/악재가 혼재되어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지표 부진 지속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317.6만 건) 보다는 감소한 298.1만 건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250만 건)을 상회했다. 다만,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회복 기대로 급등

국제유가는 세계에너지 기구(IEA)가 올해 원유 수요에 대해 전월 발표했던 하루 960 만 배럴 감소 전망에서 하루 860 만 배럴 감소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자 급등 했다. IEA 는 유럽과 미국의 물류가 예상보다 많고, 중국의 원유 수요도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언급 했다. 결국 IEA 가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해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자 급등세를 보였다.

달러화는 고용 불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은 강한 달러가 좋다” 라고 주장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전일 파월 연준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 였다. 한편,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트럼프가 언급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장 초반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경제 재개 확대가 지속되자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했다.

국채금리는 고용 지표 부진으로 하락했다. 더불어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경제가 V 자형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으며 실질 실업률은 25%에 달한다”고 주장한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멕시코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50bp 인하하는 등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 였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5% 상승했으나 철근은 0.46%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27.56	+8.98	+17.03	Dollar Index	100.329	+0.09	+0.44
브렌트유	31.13	+6.65	+5.67	EUR/USD	1.0801	-0.16	-0.30
금	1,740.90	+1.43	+0.87	USD/JPY	107.3	+0.25	+0.96
은	16.156	+3.09	+3.63	GBP/USD	1.2227	-0.04	-1.09
알루미늄	1,475.00	-0.34	-0.30	USD/CHF	0.9734	+0.13	+0.03
전기동	5,202.00	-0.42	+0.08	AUD/USD	0.6459	+0.06	-0.55
아연	1,957.00	-0.91	-0.91	USD/CAD	1.4043	-0.41	+0.50
옥수수	317.50	-0.24	-0.16	USD/BRL	5.8086	-1.31	-0.46
밀	502.25	+0.10	-3.88	USD/CNH	7.112	-0.00	+0.28
대두	837.00	-0.30	-0.86	USD/KRW	1228.00	+0.34	+0.24
커피	106.70	+1.57	-2.11	USD/KRW NDF 1M	1227.34	-0.01	+0.6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19	-3.40	-2.24	스페인	0.743	+1.30	-7.40
한국	1.380	-1.20	-9.00	포르투갈	0.856	+2.10	-8.40
일본	-0.002	-0.30	-0.70	그리스	2.038	-3.90	-13.30
독일	-0.543	-1.30	+0.20	이탈리아	1.815	+1.50	-10.10